

호남 정치권 분열... 설 민심 변화 촉각

국민의당 분당 호남 국회의원 민평 15·미래 6명...2명 고심 중
기초단체장·기초의원·광역의원도 곧 결정...지방선거 구도 좌우

국민의당 분당으로 호남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 동안 형성되는 민심이 6월 지방선거 구도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설 연휴 동안 민주당 정권에 힘을 모아 주느냐와 인물 중심으로 호남에서의 경쟁 구도를 유지하느냐를 놓고 지역 민심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의 전반적인 구도와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민심의 흐름에 따라 국민의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의 정치적 진로 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28명의 호남 국회의원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소속은 전남의 이계호 의원과 전북의 이춘석, 안호영 의원 등 3명이다. 국민의당은 광주 8명, 전남 8명, 전북 7명 등 23명이었으나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다시 분화될 전망이다.
미래당으로는 6명(박주선, 김동철, 권은희, 송기석, 주승용, 김광영)의 합류가 결정됐다. 민주평화당으로는 15명(박지원, 전정배, 장병안, 최경환, 김경진, 황주홍, 박준영, 이영주, 윤영일, 정인화, 정동영, 유성업, 조배숙, 김광수, 김종화) 국회의원의 참여가 확정됐다.
전남의 손금주, 전북의 이용호 의원은 아직 선택지를 고심하고 있지만 민주평화당 합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자유

한국당 이정현 의원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각기 무소속과 미래당으로 진로를 바꾼 상황이다.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형성했던 국민의당의 분당에 따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지각 변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당장, 국민의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진로가 복잡해지고 있다. 일단 장일 의원 등 전남도 의원 20여 명은 5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탈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들로, 탈당 이후 민평당 합류와 무소속 출마, 더불어민주당 복당 등의 진로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을 택한 지역에서는 정치적 생사를 함께 한다는 반응이 높은 상황이다. 일부는 지방선거 구도와 상황을 고려하며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미래당으로 합류한 지역에서는 당혹감 속에서 지역 민심의 흐름을 주목하며 민평당 합류나 무소속 출마 등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 9명 중 6명은 최근 조찬 모임을 갖고, 논의 끝에 “각자진로를 결정하자”는 데 합의했다. 김민중(광산4), 박춘수(남구3), 유정삼(남구2), 조영표(남구1) 의원을 비롯해



평창올림픽 D-4... 첫 선 보인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4일 오후 인천 선학리극장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스웨덴과 친선 평가전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2·20면>

이은방 의장도 탈당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교육문화위원장인 김옥자(광산3) 의원은 지역구 의원인 권은희 의원을 따라 당에 남기로 했다. 또, 탈당과 관련해 일부는 특정 정당에 몸담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6월 지방선거가 3개월 이상 남는 만큼 설 연휴 민심 형성 결과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의 압

도적 우세 국면 속에 경쟁 구도 형성과 민주평화당과 미래당의 비전에 대한 지역 민심의 판단이 전체적인 지방선거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계호 출마 재고 요구... 전남지사 선거 요동

민주당, 기호 1번 사수 위해
현역 국회의원 불출마 요청
이계호 의원 “ 지켜 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도전 의사를 밝힌 이계호 최고 위원에게 출마 재고를 공식 요구하면서 전남지사 선거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은 4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이 최고위원을 만나 출마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핵심관계자는 “현역의원

은 무조건 지방선거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선거 전망이 비슷하면 현역은 자제하는 것이 당을 위해 좋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출마 문제와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과 지역 내 개인 지지도를 고려할 때 재산인 이 최고위원의 당선 가능성이 크지만, 현역의원이 출마할 경우 자칫 원내 제1당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을 사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이 ‘지방선거 후보 확정 전 의원직 사퇴 금지’ 방침을 내리고 의석수 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과정에서 1~2명의 바른정당 의원이 추가로 한국당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은 적잖이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최고위원은 출마 의지를 확고히 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을 밝힌 자료를 내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직은 전남도지사 출마를 전제로 사퇴하기로 했고, 출마 의지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정

대로 오는 2월9일 이후 13일 이전에 사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간 압도적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당사자에 의한 이유가 아니라 중앙당의 요청에 의해 불출마한다면 반드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지지의사를 보인 도민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유가 필요하다고 이춘석 사무총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의 이 같은 입장 표현에 따라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전남지사 자리를 노려온 임지자 등은 선거구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 중앙당이 “임지를 4분의 3

이상 차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각급 공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 경선에서 10%를 감점한다”는 당규를 이번엔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경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당 이계호 당 안팎의 인사들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이 사무총장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사실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하지만, 이 총장은 “이계호 의원에게 출마 자제 요청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 의원이 출마할지 불확실할지 모르는데 앞서서 나갈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또 “특정인을 나가라고 하면 그를 밀어주기 위해 이 의원을 희생시킨 것인데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고법원장 최상열
광주지법원장 윤성원
대법, 고위법관 인사



최상열 고법원장 윤성원 지법원장

전주지법원장 한승
광주가정법원장 고영구

대법원이 광주고등법원장에 최상열(60·사법원수원 14기), 광주지방법원장에 윤성원(55·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했다. <인사 명단 22면>
또 전주지법원장에는 한승(55·17기), 광주가정법원장에는 고영구(60·20기) 판사를 전보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59·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최상열 선임 광주고법원장은 대구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울산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이 고향인 윤성원 광주지법원장은 동성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 윤지법원장은 특히 지난 2010년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와 2011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공주와도 인연이 깊다.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전주출신이며 전주 신흥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 지법원장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

고영구 광주가정법원장은 제주도에서 태어나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지냈다.

한편 김광태(57·15기)광주지법원장은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HNT 하나투어
2018 온라인 2월 5일~18일
허니문 박람회
1등이 하면 다릅니다!
2주간 진행되는 로맨틱 허니문위크!
하나투어 온라인허니문박람회 를 검색해주세요!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228-1199
최대 165만원 상당 혜택!
혜택 ① 신부 반값 최대 쌍당 80만원 할인
혜택 ② 하나투어 마일리지 최대 20만마일 제공
혜택 ③ SM면세점 최대 6만원권 제공 (커플당)
혜택 ④ 런닝맨체험관 초대권 제공 (인당 1매)
혜택 ⑤ 삼성디지털플라워딩GIFT 최대 55만원 혜택
*상품별, 지역별 상이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권리거사 상장기업 |